

퇴직자 10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금지

전개공,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강력 추진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사진)는 퇴직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취득을 10년간 금지하는 등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전북도 감사관실은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순창 순화지구와 익산 부승4지구에 대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여부 등을 조사했다. 또 공사에서는 이들 지구 외에도 사업 후보지인 고창 백양지구와 전주 천마지구에 대해 공사 임직원 배양자와 직계 가족 454명을 대상으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도 감사관실 조사결과와 자체 특별감사 결과, 공사 임직원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공사 퇴직자가 퇴직 이후에 사업후보지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발생했으나 해당 퇴직자는 공사에서 퇴직한지 1년 9개월이 지난 다음 토지를 취득했고 퇴직 당시에는 개발정보 자체가 없었으므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사는 공사가 인지하지 못한 또 다른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제도상 허점을 재점검한 후, 이를 토대로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사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방안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라도 10년간 미공

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범죄행위 발생 시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년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여부를 확인해 의심사례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계획한다.

공사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 외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부당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방지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개발공사 김천환 사장은 "최근 전라북도 조사결과와 자체 특별감사 결과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지만, 공사에서 부동산 투기 단속이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보완해 신뢰받는 도민의 공기업을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 '맞손'

LX-세종시, 협약 체결 부동산 투기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등 공동 협력



4-1.김정렬 LX 시장과 이준희 세종시장이 12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지적불분할지 해소 및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LX)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준희)가 스마트 공간정보 구현과 지적 불분할지 해소를 위해 손을 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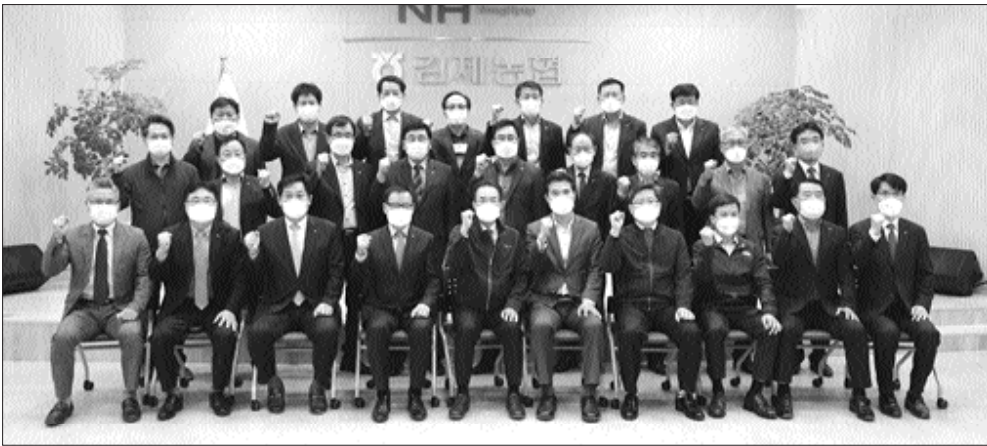
LX와 세종시는 12일 세종시청에서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5년간 ▲부동산 투기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활용 전략계획 수립·구축 ▲지속 발전 가능한 공간정보체계 개선·서비스 방안 ▲디지털 지적의 조기 완성을 위한 지적재조사에 비롯한 다양한 사업과 연계·발굴을 위해 공동 협력한다.

세종시는 올해 '세종형 자치 모델' 실행과제를 마련해 주민 자치

모델을 선도적으로 만들고 행정중심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을 재정정해 편안하고 안전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LX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인 시민 참여형 디지털트윈 표준모델을 비롯해 지하공간 통합지도·드론맵 등을 확대 구축해 온 기술과 노하우를 토대로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방침이다. 김정렬 시장은 "코로나19 인한 비대면으로 디지털 대전환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와 협업을 통한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토정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9일 김제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업·농촌 위기 타개를 위한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농업·농촌 위기 타개

전북농협, 농정간담회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9일 김제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업·농촌 위기 타개를 위한 농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김원철 농협중앙회 이사(현 부안농협 조합장)와 부안·김제 지역 지역농·축협 조합장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논공 정부수매 확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확대, 청탁금지법상 농수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수매보증 보급확대 등의 건의사항과 당면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성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발한 농정활동으로 농업·농촌 발전에 힘써주시는 조합

장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장을 이룩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합계하는 100년 농협'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 농해수위 위원 및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인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오늘 논의한 사항뿐 아니라 전국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국정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협순보 '무배당 NH힘이되는 치매보험' 출시

NH농협순보보험 전북지역총곡(총곡장 김현미)은 12일 서신동지점에서 장 기요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NH농협순보보험이 출시한 '무배당 NH힘이되는 치매보험'에 가입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20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경증치매부터, 중등도치매, 중증치매까지 단계적으로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다. 중증치매 진단 시 최대 7천5백만원까지 보장하며, 납입기간 중 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50%만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저지급형을 탑재해 동일한 보장으로 최대 9%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또한 유병자도 가입 가능한 간병인 사제도를 운영해 기왕력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자, 고연령까지 치매보험 받을 수 있고, 보험료 변동 없이 최대 100세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상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에 대한 상담과 가입이 가능하다.

장 기요 본부장은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 치매에 대비하여 고객들이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노후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제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법인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12일 전주시에 발전 적립기금 1억1,56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제휴기금은 전북은행과 전주시간의 업무제휴로 지난해 1년동안 법인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이용액의 1%를 전주시 발전기금으로 적립한 것이다. 전북은행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전주시에 약 7억5,100만원의 기금을 전달했으며, 이 적립금은 그동안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됐다.

한편 전북은행은 전주시의 전주지역화해 전주시상품권 업무제휴를 통해 상호 협력과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도농기원, 농식품 특허기술 가공업체와 기술이전 재계약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박경숙)에서 농식품 특허기술 5건을 도내업체 5곳과 기술이전 재계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비타닌 D2 보충용 건강기능식품 등 농식품 개발기술 30건을 49개 업체에 기술을 이전해 왔다.

이번에 이전한 농식품 특허기술은 '동근마 유산균 발효분말' 외 건식쌀 가루 떡볶이 떡, '발아고추씨 막장',

'흑미 식초' 및 '블랙베리 발효음료'로 3년 통상실시 후 계약종료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기술이전 체결업체는 유산균 전문생산업체 (주)케이비엔, 떡 생산업체 (주)푸르메에프에스, 전통장류업체 (영)황수연 전통식품, 흑미 등 곡물 생산업체 (영)한비음과 블랙베리 생산 및 가공업체 (유)완주베리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탄소기업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탄소산업진흥원, 내일부터 이틀간 지원 참여기업 모집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진흥을 위한 탄소기업의 사업화 인착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지원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밸류체인 지원으로 탄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전북 탄소기업 밸류체인 구축지원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북도로부터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지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소개자료 제작과 바이어 매칭, 수출상담, 해외 수출 멘토링 등 수요-공급 기업간 매칭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구입이 어려운 다양한 수입국 발굴을 통해 해외환경 리스크 탈피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샘플구입과 물류·통관지원, 통역지원, 해외 셀러 비즈니스 미팅 지원 등 탄소기업 구입 다변화 패키지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나아가 수출다변화와 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출 연계 지원사업을 제공받게 된다.

모집대상은 전북지역에 위치한 탄소 관련 중소기업이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kcarbon.or.kr)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와 발표평가 등 면밀한 심사를 거쳐 오는 20일경 지원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방윤혁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원장은 "탄소관련 기관·기업과의 상생 협력·연계와 글로벌 밸류체인 구축 등 체계적인 탄소산업 진흥 정책들을 통해 탄소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치를 높이고 밸류체인의 다양화를 이끌어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기업 밸류체인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활성화실(063-219-3688)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드론 활용 스마트 조림 시범사업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나무심기에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조림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목목 운반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목목 운반 시범사업으로, 장수군 계북면 소재 국유림나무심기 사업장에서 실시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평상시 인력으로 산정부까지 지게에 목목을 차고 올라가는 것을 드론으로 목목을 최대 50kg(목목20본)까지 나눌 수 있어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시범사업은 목목 운반에 걸린 시간과 운반 가능 수량을 비교하는 등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해 향후, 조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며 "산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등산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감소와 추위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전북중기청, 올 1차 수출바우처사업 43개사 지원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 1월 2021년 제1차 수출바우처사업 모집 결과 최종 43개사를 선정해 17.8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수출바우처 사업은 수출컨설팅, 통번역 등 12가지 분류 6,000여개의 해외 진출 마케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1차 모집에 총 102개사가 신청, 중복·요

건 적합 여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43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 등을 통해 수출 전략, 디자인, 홍보,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고창산림조합, 산불예방 캠페인

고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건) 직원들은 지난 10일 고창군이 많이 이용하는 전불 등산로 입구에서 불철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과 들이 잘 어울려진 우리고장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전불 등산로를 비롯한 고창군 관내 주요등산로 30여곳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산불예방 홍보에 노력하였고,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도 함께 하였다.

고창군산림조합 김영건 조합장은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예방 할 수 있다"며, 명품 조경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소나무가 아름다운 우리고장 고창군을 산불로부터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진청, 오늘 곤충소재 동물사료 활용 촉진 협력

농진청(청장 허태음) 국립농업과학원은 오늘 서울대공원, 자연환경 국민신탁과 함께 '곤충 소재의 동물사료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 업무협력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산업 곤충 연구의 과학문화 대중화로 동물건강 개선 효과와 생물 종 보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공익증진 차원의 협력 연구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희귀동물종의 사료로 곤충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곤충

지원 인식개선을 위한 공공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대공원이 관리하고 있는 사막여우, 프레리도그 등 야생동물에게 기능성 곤충 사료를 제공해 야생동물의 건강을 돌볼 수 있게 됐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김상남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곤충 소재 동물사료를 멸종위기 야생동물에게 제공함으로써 곤충 소재 동물사료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게 됐다"며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곤충 소재 동물사료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소비가 촉진되어 곤충산업이 폭넓게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